

나이지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1

나이지리아(Federal Republic of Nigeria)

I. 일반개황

면적	924천 km ²	G D P	1,802억 달러(2008년)
인구	146.3백만 명(2008년)	1인당 GDP	1,232 달러(2008년)
정치체제	민주공화정	통화단위	Naira (N)
대외정책	친서방 개방정책	환율(달러당)	119.28(2008년)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와 한반도의 4.2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한 역내 정치·경제 중심국으로, 수도인 아부자, 경제 중심지인 라고스, 석유개발 중심지인 니제르 델타에 위치한 포트하커트 등의 주요 도시를 보유하고 있음.
- 중동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자원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362억 배럴의 확인매장량(세계 10위, 아프리카 2위)과 246만b/d의 생산량(세계 12위, 아프리카 1위)을 기록하고 있는 주요 산유국으로 해양유전을 중심으로 향후 신규유전 개발 가능성이 높아 전 세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음.
- 석유산업이 재정수입의 70-80%, 총 수출의 90%를 차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인프라 미비와 Governance 부재로 인해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6.4	6.5	6.0	6.2	6.8
재정수지/GDP	-1.8	-1.2	-0.6	-0.7	-2.7
소비자물가상승률	15.0	17.9	8.2	5.4	11.5

자료: IMF, EIU

□ 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세 유지, 그러나 '09년 이후 둔화 전망

- 2004-07년 나이지리아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 농업, 금융서비스 등 非석유부문의 호조, 내수 증대 및 정부의 공공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평균 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8년에는 주요 유전지대인 니제르 델타(Niger Delta) 지역의 정정 불안이 심화되어 석유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非석유 부문의 강세로 인해 경제성장은 6.8%를 기록함.
- 그러나 2009년에는 OPEC의 감산결정 및 국제유가 하락세의 영향으로 원유 수입(收入)이 감소하고 그동안 호조세를 보이던 농업, 금융 서비스 등의 非석유부문 또한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을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은 3%대로 둔화될 전망이다.

□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정부의 각종 개혁추진 및 인프라 확충 노력으로 인해 지출

이 수입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만성적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평균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2009-10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의 여파로 재정수입(收入)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각각 5.5%, 4.0%로 확대될 전망이다.

* 동국의 석유산업은 재정수입의 70-80%를 차지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는 오일머니 유입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의 영향으로 2005년까지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6-07년에는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화정책 및 식료품 가격 안정에 힘입어 소비자물가가 한 자릿수로 안정되기도 하였으나, 2008년에는 부동산 및 식료품 가격 급등의 타격을 받아 소비자물가는 다시 11.5%로 반등한 바 있음. 이 같은 추세는 200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동국의 고인플레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 2007년 기준, 석유산업이 총 GDP의 25%, 재정수입의 70-80%, 총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유가 등락이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2007년 기준): 농업(40%), 석유(25%), 유통·서비스(30%), 제조업(5%)

[성장 잠재력]

□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 자원부국

- 나이지리아는 362억 배럴의 확인 매장량(세계 10위)과 246만 배럴의 일산량(세계 12위)을 기록하고 있는 주요 산유국으로, 향후 중동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 유전개발의 중심국가임.
- 나이지리아의 생산 원유는 최고급으로 분류되는 API 지수 37-45의 저유황 경질유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북해산 브렌트油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생산물량의 절반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정부는 현재 2010년까지 해양유전 개발을 중심으로 확인매장량을 400억 배럴, 일산량을 400만 배럴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추세로 볼 때, 충분히 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천연가스, 새로운 국부 원천으로 급부상

- 나이지리아는 2007년말 기준, 187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천연가스 매장량(세계 7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천연가스 발견 시 이를 덮어버리거나 자연연소 시켜 활용하지 않아왔으나, 최근 천연가스의 경제성과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처리시설 건설에 약 50억 달러를 투입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연산 2천만톤 처리 규모의 올로코카 LNG 플랜트

(70억 달러)와 브라스 LNG 플랜트(30억 달러)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며, 90억 달러 규모의 사하라 종단(나이지리아-니제르-알제리 연결, 4,400Km) 가스관로 건설계획의 추진도 한창임.

[정책성과]

□ 야르아두아 정부, 제 2차 경제개발계획(NEEDS-2) 발표

- 2007년 4월, 대통령에 선출된 야르아두아(Yar 'Adua) 대통령은 지난 오바산조(Obasanjo) 정부 당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된 국가경제발전계획(National Economic Empowerment & Development Strategy: NEEDS)의 기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주요 국정과제를 담은 NEEDS-2를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으로 발표함.
- NEEDS-2는 전력생산 능력 확충, 농업 부문 발전지원, 고용창출, 교통 인프라 복원, 토지 소유제도 개혁, 치안확보(특히 니제르 델타 지역), 교육시스템 개선 등의 7대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특히 동국 정부는 전력 공급 문제 해결에 있어 민영 부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이 확대될 때까지 우선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계획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16,840	24,202	13,796	21,972	5,170
경 상 수 지 / GDP	6.0	7.8	11.0	1.6	2.9
상 품 수 지	19,757	30,781	28,031	33,138	31,781
수 출	34,766	48,069	59,144	65,086	76,835
수 입	15,009	17,288	31,113	31,948	45,054
외 환 보 유 액	16,955	28,279	42,298	51,333	59,849
총 외 채 잔 액	37,883	22,178	7,693	7,783	8,275
총 외 채 잔 액 / GDP	52.6	21.5	6.1	5.5	4.6
D . S . R .	4.5	16.8	10.7	1.7	0.8

자료: IMF, EIU, OECD

□ 경상수지 흑자기조, 그러나 '09년 적자 전망

- 상품수지는 고유가에 기인한 석유수출 확대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004년 198억 달러 수준에서 2008년 318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음.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해외기술을 활용한 심해 유전 개발사업 추진, 다국적 석유회사의 과실송금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가 악화되면서 흑자폭이 지속 축소되어 2008년에는 총 GDP의 3% 수준인 52억 달러까지 축소되었음.
-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의 영향으로 석유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또한 악화될 것으로 보여,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의 적자전환이 예상됨.

- 상품수지: 280억 달러('06) → 331억 달러('07) → 318억 달러('08)
- 소득수지: -113억 달러('06) → -167억 달러('07) → -209억 달러('08)
- 서비스수지: -64억 달러('06) → -74억 달러('07) → -100억 달러('08)
- 경상이전수지: 34억 달러('06) → 33억 달러('07) → 42억 달러('08)

[외채상환능력]

□ 풍부한 외환보유액, 점진적 외채구조 개선

- 외환보유액은 그동안의 석유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08년말에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한 59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외채 규모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채무 재조정 노력과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2004년 52.6%에 달하던 GDP 대비 외채비중은 2008년에는 5%까지 감소되었음.
- D.S.R.도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개선되어 2% 미만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대외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GDP: 1,258억 달러('06) → 1,417억 달러('07) → 1,802억 달러('08)
 - 총 외채잔액/GDP: 6.1%('06) → 5.5%('07) → 4.6%('08)
 - 외채상환비율(D.S.R.): 10.7%('06) → 1.7%('07) → 0.8%('08)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정치 안정]

□ 정치 불안 지속

- 2007년 새롭게 출범한 야르아두아 정부의 불공정 선거로 인해 정치적 부패 시비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부진한 경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또한 고조되고 있어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현 정부의 최대 정책 현안은 나이지리아 원유의 대부분이 매장되어 있는 니제르강 삼각주(Niger River Delta)를 둘러싼 정세불안을 해소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정부가 새로 니제르 삼각주부(Ministry of the Niger Delta)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동국의 정치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관계]

□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 담당

- 나이지리아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강국으로, 지역분규의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라이베리아 및 시에라리온 사태에 개입하여 지역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적 역할을 공인받고 있음.
-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바카시 반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카메룬과의 분쟁은 UN의 중재 하에 카메룬에게 이양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락 된 바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 2007년 대선 과정에서의 불공정 시비에도 불구하고 EU, 미국 등 국제사회와 야르아두아 현 정부의 관계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동국의 경제개혁 및 선거위원회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어, 현 야르아두아 정부의 정책 추진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대외정책에는 커다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확대를 목표로 부패 및 폭력국가의 이미지 개선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높은 실업률

- 동국의 실업률은 2007년 기준, 1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동 인력이 미숙련 노동자로 농업에 편중되어 있어 非농업 부문으로의 숙련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총 인구의 40% 이상이 15세 미만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 또한 연평균 2.1%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동국의 현 실업률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추이: 140.4백만명('06) → 143.3백만명('07) → 146.3백만명('08)

□ 종족-종교적인 갈등으로 치안불안 양상 지속

- 아프리카 최대 인구를 보유한 나이지리아는 250여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부 이슬람, 남부 기독교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양분화 되어 있음. 이러한 복잡한 인종 구성으로 인해 인종, 종교간 크고 작은 유혈충돌과 폭력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2008년 11월 플라토주와 2009년 2월 바우치주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동국의 유혈충돌 및 폭력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6등급 (2007. 10) → 6등급 (2008. 10)
- ICRG : 107/140 (2008. 3) → 103/140 (2009. 2)
- I.I : 88/174 (2008. 3) → 87/177 (2008. 9)
- Euromoney : 90/186 (2008. 9) → 88/186 (2009. 3)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Short-Term Insurance Pilot Program(STIPP)으로 인수가능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가능

3. 외채상환태도

□ 2005년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협상 타결로 외채상환부담 경감

- 파리클럽은 2005년 나이지리아의 파리클럽 회원국 앞 외채 305억 달러 중 약 60%인 183억 달러를 Naples Terms(저소득국가가 개혁에 진전을 보일 경우, 채권국들이 제공하는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탕감하고,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 재조정을 실시키로 합의하였음.
- 동 외채탕감의 조건으로 파리클럽은 나이지리아가 IMF의 모니터링 하에 PSI(Policy Support Instrument) 프로그램을 이행토록 요구한 바 있음. 동 프로그램은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투명성 제고, 부패 척결 등의 이행 여건 조성을 병행토록 요구하고 있음.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성장이 예상된다.

- 2007년 새로이 출범한 야르아두아 정부가 경제 인프라 확충, 부정부패 척결, 非석유산업 육성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니제르델타 지역 분쟁 해소 등의 주요 국정목표를 지속 추진 중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국의 국별신용등급을 C3 등급으로 평가코자 함.

전문연구원 김예리(☎02-3779-6686)

E-mail : yeliekim@koreaexim.go.kr